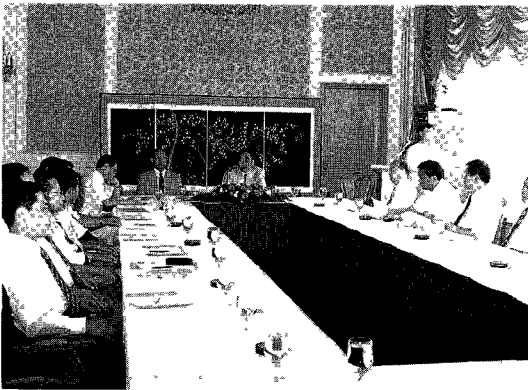


대한 양계협회

소식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결과 보고 및 평가회 개최

차기 박람회 2년 후에 개최키로



본회는 지난 6일 팔래스 호텔에서 '97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24~27일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97한국양계박람회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평가회는 회장,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97한국양계박람회 개최결과

보고 및 평가, 차기대회 개최건 협의가 있었다.

개최 결과 보고에서는 총 12개국에서 129개 업체가 398개 품목을 전시하였으며 우천관계로 인해 관람객이 7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었다. 홍보실적으로는 전문지 라디오 등을 통해 52회가 사전에 홍보되었으며 32회가 박람회 기간 이후에 언론매체에 홍보되어 양계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소요된 박람회 경비는 총 498,216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볼거리(투계대회, 홍보관 등)가 다양화되었고 상담할 수 있는 부스(컨설팅 업체 등)가 마련되어 좋았으며, 양계인들의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우천관계로 관람객이 줄었으며 홍보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한 사전에 박람회에 대한 주제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했던 점,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과거보다 시설자동화에 대한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차기 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는 박람회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다만 소비, 홍보쪽을 위시해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대안으로 세미나 내용을 양계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여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며, 관광을 겸비한 박람회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함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축산 종합박람회 전환도 의견이 제기되어 검토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차후에 범업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내기로 하였다.

일본가금학회 회원 일행 본회 방문 제6회 아태가금학회 일본 개최 홍보차



오는 '98년 6월 4~7일 일본 나고야 무역 센터에서 개최될 제6회 아시아태평양 가금 학회(APPC)를 홍보코자 APPC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겸 일본가금학회 부회장인 오키무라 슈니치씨 일행이 APPC 개최에 대한 현황 설명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등 제반 문제를 논의키 위해 지난 19일 본회를 방문 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한국가금학회와 연계하여 제6회 아시아태평양가금학회 개최에 협조해 나간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직장기 제도 홍보 필요

8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혹한기 높은 기후와 폭우 등으로 많은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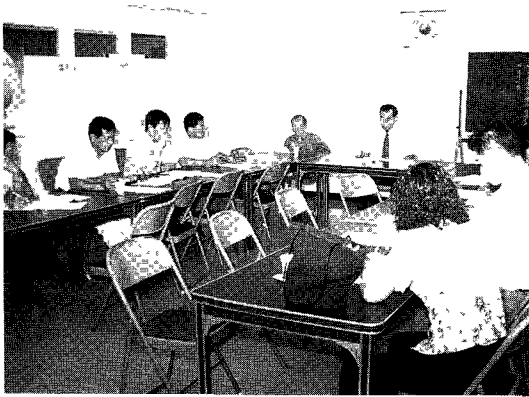


가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생산성에 큰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월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장기 제도의 경우 호응도가 좋아 참여농가들이 늘고 있으며 상인들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채란업을 하거나 정보가 어두운 채란농가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아울러 고시가격에서의 다운폭도 대부분 지역에서 10원 정도 하고 있으나 후장기를 받고 있는 농가는 15원 이상의 다운 폭을 감수하고 있어 직장기 제도의 조기 정착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난가조절을 위해서 난가조절위원들이 더욱 신중히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여 신축성 있게 조절해 나가야 하며 직장기 제도는 정착이 될 때까지 서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육계가격 2~3중 시세 성행

8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말복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육계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는 IB가 성행하여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세에 있는 육계가격은 당분간 지속되어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육계유통이 최근 들면서 유통비 상승, 상인들의 장난, 전국육계유통협의회 의 닭고기 가격 결정, 도계장 및 사이비 계열업체의 잇따른 부도 등 불합리한 육계유통이 나타나면서 닭고기 가격이 2-3중시세를 기록, 농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유통비 인상건에 대해서는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으나 결제일을 앞당기고 신뢰성 있는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유통비 인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2-3중 시세는 가격이 하락할 때 상인들이 가격하락을 부추기는데 원인이 있으나 생산자들이 출하를 서두르려고 텀핑을 일삼는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유통비 인상건, 가격 결정건에 대해서는 전국육계유통협의회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수입닭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강조

8월 중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닭고기 수입이 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닭고기 수입관계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그 외에 병아리 생산조절 등에 대한 현안문제가 논의되었다. 수입닭고기 유통에 대한 의견에서는 업계 전체가 동향을 파악하여 원산지 표시를 요구함은 물론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외식업체에도 항의성 있는 표현을 하여 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불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육계 병아리 생산 감소는 원종계 농장에서 부터 수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종발협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려가 되었던 종계 생산성은 여름 무더위로 인해 종계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산란계의 경우 하반기 종계 수입의 증가로 내년 산란계 경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사료회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우수종계장 인증요령과 백세미관계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의견이 있었다.

본회 홍보부 이유혁씨 의원면직

본회 홍보부에서 월간양계 제작에 힘을 기울여 오던 이유혁씨가 개인사정에 따라 8월 31일부로 의원면직 하였다